

특집논문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에 대한 정치철학적 재해석*

김은중
서울대학교

김은중 (2012),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에 대한 정치철학적 재해석.

초 록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포퓰리즘이 라틴아메리카 정치의 공적 담론의 영역에 극적으로 부활했다. 그러나 고전적 포퓰리즘과 네오포퓰리즘의 등장한 역사적 맥락은 전혀 다르다. 고전적 포퓰리즘과 네오포퓰리즘의 공통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카리스마를 가진 선동가가 정치체도를 무시하고 민중에게 직접 호소하는 정치형태라는 점이다. 하지만 고전적 포퓰리즘의 목표가 경제적 자유주의와 과두체제의 제도적 결합을 붕괴시키는 것이었다면, 네오포퓰리즘은 국가주도적 발전주의와 고전적 포퓰리즘의 동맹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의 목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서 등장한 라틴아메리카의 고전적 포퓰리즘을 재평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민중 개념을 재정의하는 것이다.

핵심어 포퓰리즘, 네오포퓰리즘, 민중, 과두체제, 경제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

오늘날 포퓰리즘에 대한 맹렬한 비난은
 늙은 마르크스주의자와 젊은 자유주의자 간의 합의를 은폐하려는 시도이다
 —자크 랑시에르

I. 서론—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과 네오포퓰리즘

근래 라틴아메리카 정치를 논하는 공적 담론의 영역에 포퓰리즘이 극적으로 부활했다. 196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붐(boom)을 이루었다가 1980년대 민주화 이행과정을 거치면서 사라졌던 포퓰리즘이 1990년대 후반부터 다시 학계의 논쟁거리가 되기 시작했고, 언론매체들이 앞 다퉈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과거의 포퓰리즘은 비정상적 정치 형태라는 낙인이 찍혔고, 군부독재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새로운 대의민주주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선언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또 다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가 그랬듯이 포퓰리즘도 ‘신’(neo-)이라는 접두어를 붙이고 새롭게 등장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지노 제르마니(Gino Germani)의 연구를 시작으로 (1962) 포퓰리즘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고, 1967년에는 영국의 런던정경대학교에서 포퓰리즘을 주제로 한 대규모 학술회의가 열렸다.¹⁾ 학술회의는 크게 세 가지 주제—포퓰리즘의 유형, 기본적 특징, 포퓰리즘의 정의—로 나뉘어 진행되었지만 포퓰리즘에 대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정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학술회의의 마지막 세션의 의장이었던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은 다음과 같이 포퓰리즘을 정의했다.

나는 보편적이든 보편적이지 않든 포퓰리즘을 규정하는 한 가지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는다...(포퓰리즘에 대한 단일한 규정이 존재

1) 이 학술회의에는 43명의 학자가 참가했는데 대부분 유럽과 미국의 학자들이었다.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은 *Government and Opposition*(1968), Vol. 3, No. 2, pp. 137~180에게 게재되었다가 *Populism: Its Meaning and National Characteristics*(1969)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한다고 믿는 것은) 사실에 대한 냉철한 계산이나 평가에 토대를 둔 합리적인 사회이론에서나 가능한 일이다...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포퓰리즘의 특정한 속성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일반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포퓰리즘은 전체 민중(people)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쟁취하려는 운동이며, 기존의 권력구조에서 소외된 지식인들이 급격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이다. 포퓰리즘 운동들의 특징은 민중들로부터 발현되는 단순하고 전통적인 형식과 가치로 돌아가거나 이것들을 적용하려는 믿음이다.”(178~179. 강조는 필자)

이 때문에 포퓰리즘은 ‘신발은 있지만 거기에 맞는 발은 어디에도 없는’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에 비유되기도 하고(Mény and Surel 2002, 3. 서병훈 2008, 17에서 재인용), 라틴아메리카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개념공구상자 안에서 ‘손때가 묻어 유난히 반질반질 빛나는 공구’로 표현되기도 한다(Basset 2006, 27).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퓰리즘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유래된 개념이 아니다. 포퓰리즘의 뿌리는 차르(zar) 통치 하의 러시아에서 등장한 ‘인민 속으로’(v narod) 운동이다. 1860년 처음으로 등장한 ‘인민 속으로’ 운동을 조직한 사람들은 일군(一群)의 러시아 지식인(intelligentia)이었고, 이들은 제정 차르 체제의 억압에서 벗어난 농민들의 전통적 공동체인 미르(mir)를 새로운 사회건설의 토대로 삼았다. 러시아 포퓰리스트 운동가(나로드니키, narodniki)들은 차르와 대지주들에게 저항하는 농민들의 반역에 희망을 가졌으며 이들을 통해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봉건사회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때문에 나로드니키는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열띤 논쟁을 벌였고, 레닌은 나로드니키와 민중을 향해 “누가 민중의 친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회민주주의에 대항해 싸울 것인가?”(1894)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Boron 2011, 6). 지식인이자 혁명가였던 나로드니키는 1870년 여러 차례 농민 반란을 주동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농민들이 그들에게 냉담함과 적대감을 표출하면서 러시아 포퓰리스트 운동은 소멸되었다.

포퓰리즘의 또 다른 뿌리는 대서양 너머 미국의 인민당(People’s Party)이

다. 1892년 인민당 대통령 후보였던 제임스 위버(James Weaver)는 전통적인 양당제 후보들과 경쟁해 10%에 가까운 득표를 했는데, 이 당시 인민당의 당원들은 포퓰리스트(populist)라고 불렸다. 대부분 중서부 지역의 농민들이었던 미국의 포퓰리스트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였지만 거대 자본의 피해자였고, 이 때문에 국가의 개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들은 금융과 운송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철도의 국유화, 운송비의 국가 통제, 반(反)트러스트법의 제정, 신용거래를 위한 금은 복본위제(bimetallism)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전통적인 양당제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했고 인민당이 민주당으로 흡수되면서(1896) 미국의 포퓰리즘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Hofstadter 1969).

이샤야 벌린이 지적한 것처럼, 러시아의 포퓰리즘과 미국의 포퓰리즘은 특정한 시기와 지역에서 등장했고 어떠한 연관성도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러시아의 포퓰리즘이 혁명적이었다면 미국의 포퓰리즘은 개혁적이었다. 미국의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탈선만을 바로잡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의 포퓰리즘의 경우, 주도 세력이었던 지식인과 학생 집단이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농민들의 동원에 성공하지 못한 반면에, 미국의 포퓰리즘의 주체는 농민들이었다. 다른 양상을 보인 러시아의 포퓰리즘과 미국의 포퓰리즘의 공통점이 있다면 양자가 모두 농촌운동이었다는 점이다(Basset 2006, 31).

라틴아메리카로 건너온 포퓰리즘은 러시아와 미국의 경우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라틴아메리카는 유럽이나 미국과 역사적·사회적 맥락이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의 등장은 1930년대 이후 산업화에 따른 대규모 사회적 이동, 대중 정치의 활성화, 그로 인한 전통적 과두지배 체제의 약화로 설명된다.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대농장이 주도하던 1차 산품 수출모델은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화 모델로 대체되었고, 이때부터 라틴아메리카 사회경제적 상황이 크게 변화되었다. 산업화는 도시를 성장시켰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중산계층과 도시 노동자 계급이 등장했지만

전통적인 형식의 정치적 대의제와 사회정책은 새로운 계층의 요구를 체제 내부로 수렴하지 못했다. 이런 맥락에서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은 러시아나 미국의 경우와 달리 ‘도시적’ 성격을 보였다. 다시 말해, 근대화가 추동한 도시화,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한 노동계급, 계급으로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등장, 과두지배 체제의 약화, 초기 단계의 민족주의 자본의 형성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인들이 포퓰리즘이라는 하나의 현상으로 수렴되었다.

포퓰리즘 그 자체는 좌/우 이분법적으로 구분되거나 어느 한 영역으로 동일시되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복합적 계급운동’(multiclass movements)이 포퓰리즘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포퓰리즘은 복합적 계급운동이다. 포퓰리즘은 어떤 포괄적인 정의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정의 문제를 잠깐 미루어둔다면 포퓰리즘에는 서로 대조를 이루는 요소들이 포함되는데, 보통 정치적 권리의 평등과 보통 사람들의 보편적 참여를 요구하면서도 카리스마를 가진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에 용해되어 버리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포퓰리즘에는 사회주의적 요구(혹은 최소한 사회적 정의에 대한 요구), 강한 민족주의적 요소, 계급중심주의의 거부, 소규모 재산에 대한 강력한 요구도 포함된다. 포퓰리즘은 통상 민중과 민족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특권적 이해집단에 맞서서 보통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한다. 사회적·문화적 조건에 따라 포퓰리즘이 강조하는 요소가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요소들을 포퓰리즘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Germani 1978, 88. Laclau 2005, 4에서 재인용)

1930~50년대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을 1990년대 이후의 네오포퓰리즘과 구분하여 고전적 포퓰리즘이라고 부른다면, 라틴아메리카 고전적 포퓰리즘은 라틴아메리카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면서 발생했던 이행의 한 국면이었다. 즉 포퓰리즘이라는 정치현상은 라틴아메리카가 과두지배체제 국가에서 자본주의 지배체제 국가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발생했다. 이것은 주변부 제3세계의 공통된 현상이었다.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 연구를 선도했던 지노 제르마니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 대신에 ‘민족민중운동’(movimientos nacional-populares)이라는 용어를 선호한 것은 이 때문이다(1962).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토르쿠아토 디 텔라(Torcuato Di Tella)였는데, 그는 포퓰리즘이 라틴아메리카에만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 개

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1965).

라틴아메리카의 고전적 포퓰리즘은 네오포퓰리즘과 전혀 맥락이 다르다. 고전적 포퓰리즘을 등장시켰던 정치사회적 배경과 자본주의 세계체제라는 대외적인 경제 상황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고전적 포퓰리즘이 과거의 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라틴아메리카 대륙을 휩쓴 우익 군사 쿠데타가 노조와 민중운동을 탄압하면서 새로운 모델의 자본축적을 시도했던 시점이었다. 그리고 1980년대 들어와 세계적 경제 불황과 외채 위기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군부 독재는 좌초했고 정치적 민주화가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맞물려 진행되면서 민족민중적이고 반과두정치적 담론과 국가주도적 경제발전정책이 결합된 정치운동은 변화된 사회에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행태로 인식되었다. 1980년대 외채위기는, 한편으로는 국가중심적·민족중심적인 발전 모델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지구적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의 빌미가 되었다. 신자유주의 강령은 민중의 요구를 사회적 프로그램과 지출에 연관시킬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외채 상환을 위한 긴축재정 정책을 요구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운동을 약화시켰고 정부가 고전적 포퓰리즘 정책에 사용했던 정책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켰다. 카르도주와 팔레토(1970), 그리고 오도넬(1972)은 점진적인 경제성장을 토대로 지도자가 대중동원과 온건한 재분배 정책을 통해 정치적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수입대체산업화 초기 단계와 고전적 포퓰리즘의 연관성을 부각시킨 바 있다. 이들은 포퓰리즘이 수입대체산업화를 통한 자본주의 축적모델로서 민족주의적, 반제국주의적, 반과두제적, 발전주의적 담론을 바탕으로 계급동맹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런 이행론(theory of transition)의 관점에 따르면 고전적 포퓰리즘과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은 양립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1990년대에 이루어진 네오포퓰리즘에 대한 연구들은 학자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적절한 ‘적과의 동침’, 즉 정치적 포퓰리즘과 경제적 자유주의의 결합 현상에 집중되어 있다(Dresser 1991; Viguera 1993;

Roberts 1995; Weyland 1996). 네오포폴리즘을 라틴아메리카 사회경제적 발전의 초기 단계였던 수입대체산업화 시기와 연관시켰던 기존의 설명 방식을 넘어서는 해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마치 정치적 영역에서 포폴리즘이라는 말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것처럼 갑작스레 포폴리즘이라는 말이 난무하기 시작했는데, 진원지는 고전적 포폴리즘의 민족주의적 경향을 비판했던 좌파 진영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우파 진영이었다. 신자유주의 진영은 민중을 들먹이는 정치인이나 국가적 개입이 예상되는 공공정책에는 무차별적으로 경멸적 의미의 포폴리스트란 딱지를 붙였다(Dussel 2007, 4; Boron 2011, 1).²⁾ 심지어는 아르헨티나의 메넴, 페루의 후지모리, 에콰도르의 부카람의 경우처럼 정권을 잡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인 정치인들도 네오포폴리스트로 규정되었다.

러시아의 포폴리즘과 미국의 포폴리즘처럼 라틴아메리카의 고전적 포폴리즘은 역사적 상황이 변화 하면서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오포폴리즘과 고전적 포폴리즘을 동일선상에서 분석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과 내용을 누락시킨 형식주의적 오류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점으로는 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정치적 주체로서의 사회운동에 대해 올바른 분석을 시도할 수 없으며, 포폴리즘의 기원을 형성하는 민중(포폴루스[populus]의 의미라기보다는 플레브스[plebs]의 의미에서)의 개념은 고전적 포폴리즘에 대한 분석에서도, 네오포폴리즘에 대한 분석에서도 똑같이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비학문적인’ 개념으로 남아 있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2) “오늘날 포폴리즘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다. 정치적·전략적으로 재규정되는 의미론적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제 포폴리즘은 워싱턴 컨센서스를 이론적 바탕으로 하는 세계화의 흐름에 거스르는 모든 정치적·사회적 운동과 정책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다시 말해, (베네수엘라 볼리바르헌법이 제정된 시점인) 1999년부터 신자유주의 기획에 반대해 일어난 모든 민중정치운동에는 포폴리스트란 낙인이 찍혔다. 따라서 사회과학은 포폴리즘이라는 용어를 거부해야 한다. 포폴리즘이란 말은 반대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세련된 욕이다”(Dussel 2007, 4).

적 포퓰리즘이 등장한 역사적·사회적 맥락의 당위성을 복원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념적인 측면에서 포퓰리즘의 특이성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라틴아메리카의 고전적 포퓰리즘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재평가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조직화되지 않고 동시에 분화되지도 않은 대중’이라는 민중 개념을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정치에서 ‘정치적인 것’으로의 이행이 보여주는 확장된 민주주의의 개념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에서 포퓰리즘을 규정해보려고 한다.

II.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의 등장 배경과 역사적 재평가

일반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은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인이 전체적인 정치적 지도력을 가지고 국가주도적인 경제적 민족주의를 앞세워 수입대체산업화라는 정책 모델을 추진한 경제적 현상으로 규정되었다. 즉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등장한 인민 대중(popular mass)은 정치적 동원에 이용되었지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정당이나 제도적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소위 라틴아메리카 고전적 포퓰리즘의 특성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라틴아메리카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서 특징적으로 등장한 사회정치적 다계급(multiclass) 간 연합(역사적·사회학적 관점). 둘째, 대중소비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한 재정 정책과 재분배 정책(경제적 관점). 셋째, ‘민중’과 ‘지배 블록’ 간의 갈등을 절합하는 이데올로기 담론(이데올로기적 관점). 넷째, 정치적 중재를 위한 제도적 형식을 권력에 종속시키거나 우회하는 방식을 통한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가의 하향식 대중 동원(정치적 관점)(Roberts 1995, 84-85).³⁾

3) 고전적 포퓰리즘과 네오포퓰리즘을 가리지 않고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에서 특히 부각되는 특징은 네 번째 정치적 관점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포퓰리즘의 부정적 특징은 7가지로 세분된다. ① ‘인민’에 대한 호소와 반엘리트주의 ② ‘적’과 ‘우리’의 이분법적 사회상 ③ 선동을 통한 단순화 ④ ‘불안의 정치’와 음모론 ⑤ ‘원래적인 것’에 대한 동경 ⑥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대한 의존 ⑦ ‘위기’(감)에 대한 대응(주정립 2006, 47-63).

그러나 포퓰리즘의 특성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든지 간에 기존의 정치적 제도를 통하지 않고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지도자의 민중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라는 부정적 결론으로 귀결된다. 또한 정치적 동원의 대상이 되는 민중은 계급으로도 시민으로도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논쟁의 주제에서 누락된다. 따라서 1990년대 들어와 정치적 포퓰리즘과 경제적 신자유주의의 결합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회적·역사적 시기가 달라지고 변화한 경제 환경에서도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남아 있는 요소는 카리스마를 갖는 정치적 리더십이다.⁴⁾ 다시 말해, 라틴아메리카의 고전적 포퓰리즘은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에 농부, 노동자, 그리고 현재의 상황(status-quo)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회적 집단의 요구와 경제적 현실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요구와 경제적 현실 사이의 관계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포퓰리스트 정치인에 의해 유발되는 대중의 정치적 동원은 간헐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뿐이고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포퓰리즘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포퓰리즘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이지만, 많은 경우 이미 정의된 규범을 통해 정해진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은 역사적·사회적 맥락이 형식주의적 논리로 환

4) 물론 대중매체가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십에 초점을 맞춰 포퓰리즘을 조명하는 것처럼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에 대한 학술적 연구들의 결론이 일차원적이고 단순적인 것은 아니다. 실증적 조사에 바탕을 둔 연구들이 지향하는 바는 포퓰리즘을 특징짓는 요소들이 결합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연구가 웨일랜드의 논문(2001)이다. “포퓰리즘은 특별히 혼란스러운 개념이다. 학자들은 포퓰리즘을 규정하는 특정한 속성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일차적 영역에서도 의견이 갈라진다. 포퓰리즘에 대한 규정은 정치적인가, 사회적인가, 경제적인가, 담론적인가? 개념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정부, 정당, 운동, 지도자, 그리고 정책에 포퓰리스트란 딱지가 붙었고 학자들은 포퓰리즘이 천의 얼굴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다”(1).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웨일랜드는 세 가지 범주의 규정을 제안한다. 첫째가 교집합적 범주(cumulation)고, 둘째가 합집합적 범주(addition)며, 셋째가 고전적 범주(redefinition)다. 교집합적 범주란 포퓰리즘의 속성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가진 경우이고, 합집합적 범주란 하나 이상의 요소에서 모든 요소를 가진 경우가 다 포함되며, 고전적 범주란 일차적 영역의 특성으로 규정된 경우다. 이런 식의 방법론은 포퓰리즘의 아류들을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포퓰리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인식론적 단절을 통해 새로운 문제설정을 시도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를 갖는다.

원되기 때문이다.⁵⁾ 따라서 단선적인 결론을 피하고 또 다른 시각에서 포퓰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틴아메리카 고전적 포퓰리즘이 등장한 사회적·역사적 배경을 외적이고 내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외적 관점은 자본주의의 축적 모델과 관련된 국제정치경제학에 토대를 두며, 내적 관점이라는 국가의 정치제도에 토대를 둔다.

1. 포퓰리즘 등장의 외적 배경—민족주의를 토대로 한 근대화

양차 세계대전이 라틴아메리카에 가져다 준 예상치 않은 행운과 1929년 대공황은 라틴아메리카에 커다란 충격을 준 지정학적 변화였다. 여기에 영국의 헤게모니가 경제적·군사적 우위를 앞세운 미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도 라틴아메리카 역사에 또 다른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⁶⁾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은 이러한 구체적인 지정학적 상황에서 등장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라틴아메리카의 산업부르주아지와 노동계급의 성장을 통해서 신생 자본주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포퓰리즘은 이 과정에서 도시화가 진행된 나라에서 가능했던 민족주의적 성격의 ‘사회계약’ 이었다. 아

-
- 5) 캐노번(Margaret Canovan)은 포퓰리즘의 다양한 현상을 일곱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1. 근대화의 문제에 직면한 후진적 농업국가에서 등장한 사회주의, 2. 기본적으로 산업금융자본의 잠식에 위협당한 소농민들의 이데올로기, 3. 변화하는 사회에서 전통적 가치를 실현할 방법을 모색하는 농촌운동, 4. 민중의 다수 의견이 소수 엘리트에 의해 점검되고 있다는 믿음, 5. 사회적 미덕은 집단적 전통을 보존하는 압도적 다수인 보통 사람에게 근거한다는 믿음이나 운동, 6. 민중의 의지가 다른 모든 기준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포퓰리즘, 7. 다수 집단이면서도 자율적인 조직의 힘을 갖지 못하는 도시노동자계급과/혹은 소작농의 지지를 누리는 정치운동. 캐노번은 일곱 가지 유형을 다시 농촌지역 포퓰리즘과 정치적 포퓰리즘의 두 유형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두 가지 유형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는 민중에 대한 호소와 반엘리트주의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캐노번의 귀결(일곱 가지의 역사적·사회적 유형→두 가지의 사회적 유형→한 가지의 정치적 유형)에서 남은 것은 민중이라는 ‘애매한’ 집단과 반엘리트주의를 내세워 정치적 권력에 도전하는 정치인이다 (Laclau 2005, 5-7).
- 6) 과거의 자유주의 국가에서 케인즈주의 국가로의 이행은 자본주의 축적모델의 변화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르주아지 헤게모니 모델의 성립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유럽은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지만 라틴아메리카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Boron 2011, 7).

직 취약한 민족적 부르주아가 노동계급과 농민 집단을 동시에 성장시켰기 때문이다(Dussel 2007, 2).⁷⁾

포폴리즘이라는 용어가 아직 등장하기 이전에 씌어진 책에서 아야 델 라 토레(Víctor Raúl Haya de la Torre)는 라틴아메리카 경제가 제국주의 자본에 편입되는 시점에서 근대적 국민국가라는 공통된 공간에 봉건제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가 혼합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조업보다는 농산물 수출경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라틴아메리카 경제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과두제와 제국주의 간의 적대로 표현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기계문명과 근대화라는 측면에서 제국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의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계급과 사회부문의 참여를 통한 ‘확장된 계급동맹’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935). 국가의 개입으로 경제발전을 기획·통제하고 ‘확장된 계급동맹’을 통해 봉건제도와 제국주의를 동시에 벗어나야 한다는 아야 델 라 토레의 주장은 포폴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라틴아메리카의 지정학적 포폴리즘의 특징을 부각시킨 선견이었다.

이안니(Octavio Ianni)는 포폴리즘이 민족사회와 종속경제 사이의 모순이 진행되는 과정의 특정한 단계에서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폴리즘을 공동체의 문화적 가치가 산업화되는 도시의 가치로 대체되는 시기의 특징이고, 국민국가의 지향성과 경제적 종속이 뒤섞인 상태의 특징이며, 새로운 계급의 등장과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과두체제의 위기가 겹쳐지는 과정의 산물로 파악했다(1977). 특히 그는 두 개의 포폴리즘, 즉 엘리트와 중간 계층의 포폴리즘과 대중의 포폴리즘을 구분했다. 전자가 대중을 도구화하고 그들의 의식을 조작한다면, 후자는 (헤게모니) 위기의 순간에 혁명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포폴리즘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

7) 멕시코 카르테나스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효율적인 투표와 재선 불가(sufragio efectivo y no reelección)”는 이러한 성격의 사회계약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이다.

엇보다도 민중의 정치적 성숙도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포퓰리즘이 대중운동으로부터 계급투쟁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국적 관점에서 세계체제적 관점으로 이동해 중심부-주변부의 시각에서 분석했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종속이론가들도 포퓰리즘을 종속자본주의의 발전 단계에 내재된 현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고전적 포퓰리즘 시기에 경제규모가 크고 산업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에서 지배적인 담론은 국가발전주의였다. 지정학적 맥락에서 볼 때, 국가발전주의 담론이 득세한 것은 1929년 이후 수출지향적 발전 정책이 붕괴된 결과였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의 영향력이 약화된 결과이기도 했다. 세계대전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독일(1930년대), 그리고 소련(1960년대까지)에서는 국가주도적 발전모델이 성공을 거두었고, 또한 서구에서도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를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들이 지속된 1960년대까지 발전주의를 장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은 지배적인 “상식”이었다. 요약하자면, 라틴아메리카의 수출지향적 발전정책과 자유주의적 과두체제는 세 가지 점에서 국가발전주의의 도전을 받았다. 첫째, 수출지향 정책과 과두체제는 1929년 이후 정당성을 상실했고 둘째, 설득력 있는 대안경제모델을 제시하지 못했고 셋째, 대다수의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기존의 정치권력과 제도를 우회해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Cammack 2000, 156)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이 등장한 외적 배경은 근대화였으며 산업화보다는 도시화가 더 중요한 요인이었다. 근대화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농촌이 붕괴되면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은 근대화로 이행하는 전통 사회의 특징적 현상, 즉 근대화를 통해 국가와 사회구조에서 동시에 발생한 이행과 위기가 표현되는 형식이었다(Weffort 1973; Boron 2011, 7). 1960년대 후반부터 종속이론이 등장한 것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

런 관점에서 본다면 라틴아메리카의 고전적 포퓰리즘은 라틴아메리카에만 국한되지 않는 주변부 국가의 포퓰리즘의 일반적 특징—계급의식의 부재,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정서적 복종, 정치적 대의 시스템의 부재 등—을 보여준다.

2. 포퓰리즘 등장의 내적 배경—확장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라틴아메리카의 고전적 포퓰리즘이 등장하게 된 외적 배경은 발전주의를 토대로 한 근대화였다. 시장경제 위에 나타나는 자본주의가 국가 없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백승욱 2006, 79-84) 그 당시의 포퓰리즘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변부 국가들이 자본주의로 진입하는 정상적인 과정이었다.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민족적 부르주아지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20세기의 양차 세계대전이 세계시장을 독점하려는 자본주의의 경쟁에서 불거진 참화였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비정상적인 것은 주변부의 포퓰리즘이 아니라 독점자본주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의 외적 배경에 대한 해석은 경제결정론에 치우쳐 있다. 고전적 포퓰리즘의 등장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내부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 포퓰리즘을 등장시킨 대륙 내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포퓰리즘과 민중을 정치철학적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 고전적 포퓰리즘을 내적 배경에서 볼 때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을 묶는 연결 고리로 포퓰리즘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즉 포퓰리즘은 동조화(sincronización)를 통해 분산된 이해당사자 집단을 조직으로 묶은 매듭으로, 특정한 사회적 계급에 토대를 두지 않고 모든 운동을 통해 가능하다는 특징을 보여준다(Ionescu and Geller 1969, 40). 포퓰리즘의 조직화 방식은 한 가지의 배타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고 계급을 가로질러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포퓰리즘의 조직화 방식에는 계급 긴장보다 민족주의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적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본질주의적(essentialist) 이데올로기를 대체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⁸⁾ 다시 말해, 당시의 포퓰리즘은 본질적으로 모순적인 사회세력 간의 ‘치명적 균형’(equilibrio catastrófico)을 이루는 일시적 현상이었다.⁹⁾ 역사적 포퓰리즘을 소급해서 볼 때, 포퓰리즘의 외적 배경으로 설명된 경제환원주의와 계급중심주의가 70년대에 들어와 한계를 드러냈던 상황에서 포퓰리즘을 통한 조직화 방식은 포퓰리즘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준다.

근대화로 이행하는 전통 사회의 특징적 현상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지노 제르마니가 이러한 이행이 선형적 형태가 아니라 ‘병렬적 형태’(asincronismo de los procesos de transformación)로 진행된다고 분석(1977, 23)한 것도 동일한 맥락이었다. 역사적 단계들이 폐기되지 않고 병렬되는 혼종적 이행에서 근대화 추진 세력은 통합된 귀족이었고 사회적 무질서 상태에 놓여 있던 대중은 사회적 동원의 대상에 머물러 있었다. 근대화를 주도한 ‘과두지배계급 간의 합의’(pacto oligárquico)만으로 이루어진 제한된 민주주의에서 사회적 주변부 계층의 사회적·정치적 참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계층이 요구한 것은 정치적 민주주의였다. 다시 말해, 포퓰리즘을 지속될 수 없는 재분배를 미끼로 권력을 얻기 위한 하향식 정치 전략의 측면보다, 만족스럽지 못한 사회적 대의 체제의 개혁을 요구하는 상향식 정치 행위의 측면에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완강한 과두체제에 맞서 포퓰리즘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나 브라질의 바르가스주의, 그리고 볼리비아의 민족주의혁명운동(MNR) 같은 급진적 포퓰리즘이 자유주의적·과두제적 국가

8) ‘본질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대체했다’는 것은 라틴아메리카의 고전적 포퓰리즘이 러시아와 미국의 경우와 달리 좌, 우의 이분법적 이데올로기로 구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3페이지 인용문 참조).

9) ‘치명적 균형’이란 그람시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앞에서 언급한 ‘계급 간 균형’(empate de clases)을 의미한다. 계급분석이나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틀이 라틴아메리카 사회연구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포퓰리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다(Boron 2011, 7).

의 내적 개혁의 가능성이 헛된 희망이었음이 드러났던 30년대를 거친 이후에야 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정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생 중간계급은 근대국가 성립의 토대가 되었던 자유주의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체의 확대를 요구했다.¹⁰⁾ 다시 말해,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적대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적대로 형성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적대 전선이 형성된 것일까? 19세기 초반 유럽에서 자유주의는 이상적인 사회적 이데올로기였던 반면에, 민주주의는 자코뱅주의와 동일시되는 경멸적인 용어였다. 19세기 내내 계속된 혁명과 반동의 과정을 거친 뒤에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그러한 절합이 결코 완전하게 성사되지 못했다. ‘과두체제적·종속적 발전’(desarrollo oligárquico-dependiente) 모델은 민중들의 민주적 요구를 제도 안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더 상실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과두체제 권력집단을 결집시키는 이데올로기가 자유주의였다면, 민주적-민중적 집단의 이데올로기는 형식적으로 반(反)자유주의의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자유주의 전통과 민족-민중적 전통을 분리하는 것은 칼로 물 베기와 같았지만 이런 부질없는 시도는 20세기 내내 라틴아메리카 역사에서 되풀이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이 등장한 내적 배경은 새로운 관점에서 포퓰리즘을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첫째, 포퓰리즘을 전통적 과두제 정권 아래서 추진된 ‘정치적 이행’의 순간으로 보는 것이다. 즉 과두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는 없었지만 그것의 정당성과 헤게모니에 균열을 발생시키면서 확장된 사회적 구성원의 토대 위에 국가를 재건하기 위

10) “라틴아메리카의 중간계급(middle class)은 상류층에 속했다. 중간계급은 도시 노동자나 농촌의 농민과 공통점을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라틴아메리카의 중간계급은 이데올로기적으로 특별한 신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때때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상위계급(upper class)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지녔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분명히 중간계급은 균부통치를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지지했던 계층이었다”(피터 H. 스미스 2010, 198).

해 배제된 부문을 정치의 영역으로 통합시키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시도는 정치를 실천하는 새로운 형식이었고 동시에 경제적 축적의 공간을 개방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고전적 포퓰리즘이 목표로 한 것은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과두체제의 제도적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었다(Laclau 1977, 177-194; Commack 2000, 155-156). 이것은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거꾸로 뒤집는 것인데, 포퓰리즘이 산업화를 추동한 것이지, 산업화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포퓰리즘이 아니다(Gonzalez 2007, 91).¹¹⁾ 둘째, 정치적 리더는 과두 체제의 수령(caudillo)이나 대지주와는 다르게, 통합된 정치 제도인 국가 수장의 역할을 담당했다. 광범위한 신생 사회계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대의 시스템이 부재했던 상황에서 포퓰리스트 정치인은 중재 시스템을 우회해 민중 계층을 조작한 것으로 매도할 수 없다.¹²⁾ 셋째, 정치적 전략으로서 포퓰리즘은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대표해 줄 제도적 형식을 요구했던 새로운 사회적 주체의 등장을 발판으로 삼아 국가 구성의 원리를 새롭게 제시했다. 요약하자면, 라틴아메리카 고전적 포퓰리즘은 경제적 자유주의로 포장한 보수적 구체제가 시대적 변화를 담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계급정체성과 개인의 시민적 권력에 대립되는 국가적 정체성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
- 11) 물론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회정치적 현상을 한 가지 주장이나 단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대한 고전적 평가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하는 것은 고전적 포퓰리즘보다 앞선 시기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페루의 빌링허스트(Guillermo E. Billinghurst) 정권(1912-1914)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는 과두 체제를 떠받치는 모든 권력 축—군부, 의회, 지방 토호, 대농장주, 교회, 정당—에 끊임없이 맞섰다. 리마의 시장(1909-1912)이었던 그는 도시민중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그가 등을 돌렸던 과두 세력에 의해 16개월 만에 정권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아르헨티나의 이리고옴(Hipólito Irigoyen, 1916-1922 집권), 칠레의 알레산드리(Arturo Alessandri, 1920-1925 집권), 우루과이의 바틀레 오르도네스(José Batlle Ordóñez, 1903-1909 집권)에게도 적용된다(Gonzalez 2007, 87-91).
- 12) 권위주의적이면서도 대중적인 리더인 카우디요의 이미지는 독재적인 라틴아메리카 정치적 리더십을 상징하며 포퓰리즘과 어울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포퓰리즘이 독재적이고 개인에게 집중된 권력 형태 대신에 대중 정치의 맥락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포퓰리스트 정치인과 카우디요는 다르다. 포퓰리스트 정치인은 지배를 위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중적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주도적 국가발전주의를 추진했다.

III. 포퓰리즘: 사회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정치에서 ‘정치적인 것’으로¹³⁾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에 대한 중요한 연구들이 출간된 시기는 1960년대 중반~1970년대 말이었다(Di Tella 1965; Germani 1962, 1977; Cardoso y Faletto 1970; Córdova 1974; Ianni 1977; Laclau 1977). 이 연구서들의 대부분은 라틴아메리카 정치 구조를 분석하면서 국가중심적 발전주의를 강조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헤게모니를 잡은 미국의 주도 아래 ‘근대화론’(modernization theory)이 대륙 전체에 확산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경제결정론과 계급투쟁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과두제와는 다른 정치적 실천과 사회구성체의 확장을 요구하는 사회적 행위자들의 출현에 주목하지 않았다. 또한 정치적 민주화와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이 대륙 전체를 휩쓸었던 1980년대에는 민주주의를 재평가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으며, 1990년대에는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제일의 목표로 설정되었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의 정착과 공고화는 정치 체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했다. 하지만 거의 조직화되지 않고 동시에 분화되지도 않은 민중이라는 사회적 행위자를 고려하지 않으면 어째서 경제적 호황기에도 포퓰리즘이 사라지지 않으며, 경제위기에도 지배집단이 포퓰리즘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의 등장은 두 개의 이행 과정이 동시에 진행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과두제에서 포퓰리즘으로의 정치적 이행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이행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 행위

13) ‘사회적인 것’(the social)과 ‘정치적인 것’(the politic)은 존재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것을 뜻한다. 즉 사회와 정치가 제도화된 형식을 의미한다면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은 제도화된 형식을 범람하는 잉여를 의미한다.

자인 민중의 등장이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고전적 포퓰리즘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네오포퓰리즘에 대한 연구에서도 여전히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비학문적인’ 개념으로 취급되는 민중에 대한 새로운 정치철학적 해석을 요구한다.

1. ‘외부에 의한 사유’로서의 유물론

고전적 포퓰리즘에 대한 ‘징후적’(symptomatic) 독해를 통해 포퓰리즘 현상에 대해 구성주의적(constitutive) 관점에서 접근한 사람은 좌파 진영에 속해 있던 라클라우였다.¹⁴⁾ 라클라우가 두 권의 중요한 저술(Laclau 1977, 1985)을 집필하던 시기는 근대문명의 본산이라고 여겨졌던 유럽에서 문화적 모순과 갈등이 증폭되는 시기였다. 한편으로는 구좌파에 대한 이론적 재구성이 요구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이론으로는 유형화하기 힘든 사회적 투쟁들—페미니즘의 발흥, 인종적·민족적·성적 소수집단에 의한 저항운동, 반핵운동, 평화운동 등—이 발생했다. 라클라우의 말을 빌리면 위기에 처해있었던 것은 “노동계급의 존재론적인 중심성, 한 유형의 사회로부터 다른 유형의 사회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계기로 간주되는 대문자 혁명(Revolution)의 역할, 정치라는 계기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완벽하게 통일적이고 동질적인 집합의지에 대한 가상적인 전망에 근거한 사회주의라는 전체적인 구상 등이다”(1990, 12). 다시 말해, 위기의 진앙은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위기, 혹은 사회주의의 필연적인 도래라는 특권화된 본질주의(essentialism)였다. 그리고 이 위기로부터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자율적인 운동이 발생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라클라우가 목격한 “갈등의 증대는 무엇보다도 합리적

14) ‘징후적 독해’란 말은 스타브라카키스(Yannis Stavrakakis)에게서 빌려왔다(2005, 230). 징후적 독해란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구성주의적(=관계론적) 관점에서 포퓰리즘에 접근하는 것을 뜻한다. 징후라는 말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의 징조나 조짐을 가리키는 것처럼, 포퓰리즘에 대한 징후적 독해란 민중이 등장하는 맥락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포퓰리즘에 대한 분석이나 이데올로기적 분석이 아니라 정치적 실천의 분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고 조직된 구조로서의 사회(society)에 대한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과잉’으로서 스스로를 제시”했다(1990, 11~12).

‘옛 것은 사라지는데 새로운 것은 나타나지 않는’ 위기의 상황은 ‘이중의 공백’ (doble void)을 발생시켰다. 하나의 공백이 노동계급이 사회변혁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 즉 사회적인 것이 단순히 물질적 이해관계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발생했다면, 다른 하나의 공백은 사회적 행위자들의 다양성에서 발생하는 파편화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계급중심주의와 경제결정론, 그리고 단선적 역사 개념이 실효성을 상실하면서 남겨 놓은 자리를 공백이라고 표현한다면, 엄밀하게 말하면 그 공백은 ‘비어 있음’이 아니라 ‘과잉’으로서의 사회적인 것의 등장이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위기와 사회주의의 필연적인 도래라는 필연성의 논리가 우연성의 논리로 전치(轉置)됨을 의미한다(Dussel 2001; 라클라우·무페 1990).

필연성이란 물질적 생산의 일차성을 경제의 일차성으로 치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역사적 유물론을 자연의 법칙(natural law)으로 인정하는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계급중심주의와 선형적 역사관도 보편적 자연의 법칙으로 승격된다. 그러나 세계의 물질성이나 객관성에 대한 믿음과 결부된 것처럼 보이는 필연성의 논리는 관념적인 내부성의 논리의 다른 이름이다. 자연법이라는 선형적 원리에 의지하는 필연성의 논리는 사실상 관념 안에서 조작된 내부적 통일성이기 때문이다. “‘내부’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경계 안에, 어떤 하나의 원리나 법칙,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영역 안에 있음을 뜻한다”(이진경 2006, 23). 내부성이 부정하는 것은 외부성이다. 내부성의 논리는 외부에 존재하는 것을 내부화한다.¹⁵⁾ 필연성과 내부성, 우연성과 외부성을 짝패로 놓고 보면 필연성이 우연성을 배척하는 것은 비논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부화되지 않은 외부이기 때문이다. 필연성과 우연성이 논리적 정합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내부성과 대립된 외부성은 ‘저항’으

15) 외부를 내부화하는 방법에는 관념론, 매개, 외화와 ‘부정의 부정’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진경(2006, 23-35)을 참조.

로 다가온다.

필연성의 논리가 우연성의 논리로 전치된다는 것은 동시에 내부성의 논리가 외부성의 논리로 전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중의 전치는 정체성의 관점에서건 구조의 관점에서건 사회는 닫힌 실체(entity)가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을 받아들여 라클라우가 포스트-마르크스주의의 입장을 취한 것은 유물론을 ‘외부에 의한 사유’ 혹은 ‘외부를 통한 사유’로 전환했기 때문이다(이진경 2006; 2009).

사회는 궁극적인 불가능성, 불가능의 대상이다. 그것은 단지 그 불가능한 대상 또는 질서를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로서만 존재한다. 말하자면 사회의 질서는 항상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는 차이들의 체계의 불안정한 질서이다. 차이도 공간도 결코 궁극적으로 봉합될 수는 없다. 우리가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논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인식 가능한 대상으로서의 사회(society)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클라우 · 무페 1990, 271. 강조는 필자)

‘외부에 의한 사유로서의 유물론’이 헤게모니 개념과 절합되는 지점은 내부와 외부 사이의 변증법이 새롭게 진화하는 지점이다. 외부에 의한 사유로서의 유물론은 경제라는 장이 내재적 법칙에 종속되는 ‘자기 조정적’(self-regulated) 영역도 아니고, 그곳에 궁극적으로 계급으로 고정될 수 있는 사회적 행위자의 구성적 원리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계급 위치가 필연적으로 역사적 이해의 장소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헤게모니는 “외부적인 무엇의 새로운 절합을 통해 내재화하는 과정”, 즉 주체의 계급적 성격에 의해 선(先)결정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정치적 관계의 복합적 체계이다.¹⁶⁾ 다시 말해, 헤게모니는 “외부의 내재화 과정이 있는 때에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내재화 과정이 일어나야만 하는 필연적 핵심

16) 라클라우는 헤게모니 개념을 통해 그람시와 ‘더불어’ 그람시를 ‘넘어선다.’ “그람시는 여전히 본질주의의 요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외부의 내재화 과정이 항상 계급 핵심 둘레에서 발생해야 하기 때문이다”(라클라우 · 무페 1990, 267).

이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267~8). 이것이 68년 세계변혁운동 이후 등장한 신사회운동에서 목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외부에 의한 사유로서의 유물론과 헤게모니 개념의 절합이 보여주는 것은 사회의 ‘잉여’로서의 사회적인 것의 등장이며, 정치로부터 정치적인 것으로의 이행이다. 그리고 라클라우가 자문하듯이 이러한 이행으로부터 포퓰리즘과 밀접하게 연관된 질문이 등장한다. 첫째, 헤게모니가 계급 주체의 헤게모니가 아니라면 누구의 헤게모니인가? 둘째, 헤게모니 관계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즉 관계가 헤게모니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268) 이러한 질문은 포퓰리즘의 토대를 이루는 민중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 프롤레타리아트와 민중

포퓰리즘에 대한 연구에서 라클라우가 주목한 것은 계급과 민중의 관계였다. 즉 라클라우의 문제의식은 계급이 역사적 주체라는 특권적 위치를 상실했을 때 ‘민중(pueblo)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다.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민중이다. 민중이 포퓰리즘에서 가장 핵심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Laclau 1977, 165). 그러나 민중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어느 쪽 진영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민중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자본주의와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외부’ 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민중은 합리적 개인을 출발점으로 삼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외부이면서 동시에 계급을 중심으로 사회를 파악했던 마르크스 사회주의의 외부였다.¹⁷⁾

17)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인간 삶의 기본적인 모순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식했는데,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개인주의적 자본주의를 공동체적 사회주의 간의 모순을 부각시켰고,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와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간의 모순을 부각시켰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의 승리는 민주주의의 승리를 의미했고, 자본주의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토대가 되는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동일시되었다. 즉 정치사상사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장하는데 기여한 자유주의 논리가 경제사상에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의 논리와 동맹을 맺으면서 자유주의=자본주의=민주주의의 등식이 성립되었다(김은중 2009, 153).

민중은 사회적 질서의 외부, 사회적 질서로 포착되지 않는 잉여로 등장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민중은 ‘아이들의 정치학’을 인정하지 못하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한계에서 출현하며 (정치의 외부이자 잉여인) 정치적인 것을 포착해내지 못하는 자유주의의 무능력의 한계에서 출현한다. 합리주의와 보편주의 그리고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합의와 만장일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인 것의 추방을 의미한다.

우리는 정치적인 것을 어떤 한 유형의 제도로 제한하거나 사회의 특정 분야나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정치적인 것을 모든 인간 사회에 본래부터 있으며 우리의 존재론적 조건을 결정하는 하나의 차원으로 생각해야 한다. 정치적인 것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견해와 자유주의 사유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다. 자유주의 사유가 다양한 형식의 적의(hostility) 현상과 마주칠 때 매우 어리둥절해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자유주의 사유가 이른바 ‘대중들’이 표출되어 나타나는 정치운동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개인주의적인 용어로는 이 운동들을 잘 포착할 수 없기에, 이는 흔히 병리적인 것으로 분류되거나 비합리적인 힘들의 표현으로 간주된다. 실례로 파시즘 현상을 결국은 체념하고 받아들인 자유주의 이론가들의 무능함을 보라.(무페 2007, 13)

‘모든 인간 사회에 본래부터 있었고 인간의 존재론적 조건을 결정하는 하나의 차원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무페의 언급은 인간 사회가 끊임없이 모순과 갈등이 존재하는 ‘정치적 공동체’(comunidad política)임을 뜻한다. 모든 정치 질서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 효과를 피할 수 없다. 여기서 부정적 효과란 때로는 불이익을 뜻하고 때로는 배제를 가리킨다. 따라서 불이익과 배제를 당하는 희생자가 발생하며, 희생자의 발생은 사회적 저항을 유발한다. 불이익과 배제로 인한 사회적 저항이 현상(status quo)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불이익에 대한 시정의 요구가 주어진 질서 내부에서의 저항이라면, 배제를 시정하라는 요구는 질서 외부의 저항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가 신사회운동으로 구체화된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라면, 후자는 민중운동이 요구하는 ‘정치적 정체성’

(identity *in* politics)이다. 정체성 정치가 차이의 인정을 요구하는 인정투쟁이라면, 정치적 정체성은 정치적인 것을 통해 정치를 재규정하고 재배치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민중은 정치적인 것을 통해 정치를 재규정하고 재배치하는 사회적 동인(動因)이다.

계급 대신에 민중을 사회변혁의 동인으로 숙고했던 라클라우는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트를 민중이라고 불렀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서, 이 글에서 다루는 포퓰리즘과 민중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에 의해 인간관계를 규정했던 계급보다 민중 개념이 먼저 등장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독일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갑자기 들이닥친 산업 운동을 통해 비로소 생성되기 시작하였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형성하는 건 **자연적으로 발생한 빈민들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빈곤해진 자들**이며, 사회의 압박에 기계적으로 짓눌린 인간 대중들이 아니라 사회의 **급격한 해체**에서, 주로 중간 계층의 **급격한 해체**에서 비롯된 대중들이기 때문이다.....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기존 세계의 질서의 소멸**을 공언한다면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자기 자신의 존재의 비밀을 진술하는 것에 불과한데, 그들은 실상 그런 세계 질서의 해체이기 때문이다.(마르크스 1994, 14-15. 베틀러 외 2009, 74에서 재인용. 강조는 원문)

마르크스가 경제학 연구를 시작하기 이전 저작인 「헤겔 법철학 비판을 위하여」에서 처음 사용한 프롤레타리아트 개념은 사실상 ‘계급이 아닌 계급’이었고 마르크스는 이들을 민중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 개념이 출현하는 『자본』의 인구법칙과 본원적 축적을 다루는 부분에서도 프롤레타리아트를 임노동 이전에 ‘산노동’(trabajo vivo)의 주인이었던 ‘가난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봉건제도가 해체되면서 노동시장에 던져진 공기처럼 자유로운 프롤레타리아 대중(Masse)’, ‘민중적 대중(Volksmasse)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와 빈곤화’, ‘민중의 토지(Volksland)에 대해 저질러진 약탈’ 등의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프롤레타리아트는 사회의 급격한 해체로 발생한 가난한 민중이었다(Dussel 2001, 187). 즉 계급이라는 범주

(category)가 사용될 수 없었던 사회변화의 이행 단계에서 전혀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으로 발생한 가난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새로운 범주가 민중이었다. “그렇게 대대적으로 창출된 근대적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랑자가 되어 사회를 떠돌거나 결식하는 거지가 되거나 날품을 팔며 하루하루의 생계를 잇는 다양한 이질적인 사람들을 통칭하는 개념이지, 하나의 적극적 규정에 의해 ‘계급’으로 정의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이진경 2006, 280. 강조는 필자).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처음부터 자본주의적 계급으로서 탄생한 부르주아지에 의해 계급투쟁의 적대적 대상이 된 프롤레타리아트로 부르는 대신에 민중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¹⁸⁾

민중은 자신의 삶을 재생산할 수 없는 사람들의 통칭이다. 민중은 추상적인 경제 체제에 속하는 범주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볼 때 봉건제도의 농노였을 뿐 아직은 자본주의의 임노동자에 속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사회정치적 수준의 범주이다...따라서 민중은 가능한 경제 체제보다 앞서고, 경제 체제에 속하며, 경제 체제 이후에도 존재하는 행위자들의 역사적·정치적 범주이다. ‘계급’은 생산양식과 같이 사라지지만 민중은 (노예로, 농노로, 임노동자로) ‘계급’보다 오래 존재하고 역사적 지속성을 유지한다. 이 때문에 마르크스는 계급이었던 농노가 해체되고 다른 계급(임노동자)이 탄생하지 않았던 시기에 민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Dussel 2001, 188. 강조는 필자)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다양한 종류의 생산과 활동을 하던 이질적이고 상이한 집단들의 집합이었으나 부르주아지에 의해 계급적 경제의 외부로 배제되었던 ‘계급이 아닌 계급’이고, 더 적극적으로 ‘비계급’이라고 부를 수 있다(이진경 2006, 280-1). 산업화보다는 도시화를 통해 근대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해체는 마르크스가 지적한 민중 탄생의 역사적 상황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들을 민중이라고 부

18) 이런 맥락에서 프롤레타리아트 대신에 프라이 베토(Frei Beto)가 만들어낸 포브레타리아트(pobretariado)라는 개념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눈에 띈다(Daniel Chavez *et al.* 2008, 7; Boron 2011, 2). 포브레타리아트는 계급으로 묶이지 않는 분산된 빈민 집단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뜻한다.

르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며, 더 나아가 비계급이 여전히 계급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우려를 벗어날 수 있는 이점도 갖는다. 두셀이 지적하는 것처럼, 1970~80년대에 라틴아메리카에서 계급과 민중이 논쟁의 양극을 차지했던 것은 계급 개념으로는 억압을 분석하고 해방의 지평을 제시하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이다(Dussel 2001). 두셀이 민중의 정치적 범주를 정하는 것이 라틴아메리카 정치철학의 이론적 목표이자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카스트로의 연설을 언급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우리가 투쟁할 때 사용하는 ‘민중’이라는 말은 권력에 통합되지 않는 (irredenta) 거대한 집단이고..., 모든 질서를 근본적이고 지체롭게 변화시키기를 바라고,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집단인데, 무엇인가를 그리고 누군가를 믿기 때문에, 특히 스스로를 충분히 신뢰할 때... 우리는 일자리가 없는 60만 쿠바인을, 갈대로 만든 누추한 곳에서 사는 50만의 농부를, 임금을 강탈당하는 40만의 도시 노동자와 일용노무자를, 자기 것도 아닌 땅을 모세처럼 약속의 땅처럼 바라보면서 죽도록 일만 하는 10만의 소작농들을, 30만의 교사들을, 빛에 허덕이는 20만의 소상인들을, 희망을 가지고 기꺼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10만의 젊은 전사들을 민중이라고 부른다...모든 불운을 겪으면서도 용기를 내 싸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민중이다.(Dussel 2006, 56-57)

3. 민중과 헤게모니

마르크스가 언급한 민중이 전근대 사회의 신분이 해체되고 근대 사회의 계급이 형성되기 이전에 탄생했던 사회적 집단이었다면 카스트로가 언급하는 민중은 계급이 형성된 이후에 계급으로 모두 포괄되지 않는 사회적 집단이다. 마르크스가 언급한 시기의 민중의 해방이 사회의 급격한 해체에 의해서 가능했다면 카스트로가 언급한 시기의 민중의 해방은 계급이 일반적 지배를 성취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믿었다. 전자의 경우에 모든 특수성이 용해되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 특수성을 통해서만 보편적 해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프로레타리아트) 계급이 ‘물신화된 역사적 주체’ (sujeto histórico fetichizado)로 전락하면서 특수성을 통한 보편적 해방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

되어야 할 필요가 생겼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는 차이의 정치학, 즉 앞에서 언급한 정체성 정치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차이의 정치학의 ‘차이’는 자본의 공리계 내부와 외부로 구분되는 차이가 아니라 자본의 공리계 내부로 포섭된 차이이다. 계급으로 단일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급환원주의를 비판하지만 자본과 적대를 형성함으로써 자본의 외부가 되는 그런 차이는 아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한다면, 물신화된 프롤레타리아트(계급)의 혁명적 역할을 부정했지만 프롤레타리아트가 비계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프롤레타리아트를 비계급으로 인식한다면 차이의 정치학의 ‘차이’가 달라질까? 만일 달라진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중심부 국가의 자본주의 체제가 강화되면서 부르주아지에 의해 비계급이었던 프롤레타리아트가 계급화되는 과정에서도 카스트로가 그들을 프롤레타리아트로 부르지 않고 민중으로 불렀던 데서 해답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라클라우는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을 받아들여 포퓰리즘의 핵심인 민중을 사회적 공간을 양분하는 적대의 한 극으로 설정한다. 라클라우가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에서 주목하는 것은 첫째, 헤게모니 이론이 사회적 복합성을 정치적 투쟁의 조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둘째, 복수의 사회적 주체들은 역사의 목표를 선협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헤게모니 절합을 통해 정치적 투쟁의 의미를 도출한다는 점이다.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에서 라클라우는 계급투쟁과 민중투쟁의 단절과 연속성을 발견한다. 즉 민중의 전통은 이질적이고 상이한 주체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계급중심적 담론으로부터 단절되지만 계급이 자임했던 보편적 해방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갖는다. 정치적 투쟁이 지향하는 바가 보편적 인간 해방이라면, 여기서 보편성이란 필연적 보편성이 아니라 우연적 보편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계급중심적 담론을 비판한다. 그러나 라클라우가 이보다 더 주목하는 것은 민중이 보편적 해방의 동인으로 등장하는 맥락이다. 다시 말해, (그람시가 본질주의를 피하기 위해 사용했던 블록이라는 용어를 빌리면) 모순과 갈등을 내재

하는 정치적 공동체가 ‘역사적인 지배 블록’(bloque histórico en el poder)과 ‘피억압자들의 사회적 블록’(bloque social de los oprimidos)으로 적대가 형성되는 시점이다.¹⁹⁾ 여기서 앞에서 던졌던 두 번째 질문 ‘관계가 헤게모니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다.

차이의 정치학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회적 주체들의 정치적 요구들을 통해 표현된다. 정치적 공동체에서 자본의 공리계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지배-종속의 방식이 인식되면서 투쟁의 상황과 정치적 요구도 다양해진다. 이러한 요구들이 절합되지 않고 고립되어 있으면 단순한 ‘민주적 요구’(demanda democrática)에 머문다. 차이들이 ‘절합을 통해 등가화’(articulación equivalencial)될 때 비로소 민주적 요구는 ‘민중적 요구’(demanda popular)로 변화한다. 여기서 민주적 요구는 차이의 논리로, 민중적 요구는 등가의 논리로 치환될 수 있으며, 두 개의 논리는 어느 한 쪽으로 완전히 기울 수 없다. 헤게모니 이론은 내용에 관계없이 두 개의 논리 사이의 균형 관계를 보여준다.

민중이라는 범주가 애매한 이유는 정치적 투쟁에서 다양한 운동들, 계급들, 부문들을 한 데 묶기 때문이다.²⁰⁾ 차이를 갖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회적 주체(위치)들이 민중이라는 정치적 범주로 새롭게 규정된다는 것은 적대를 통해 사회적인 것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헤게모니를 ‘동의에 의한 지배’로 이해할 때 사회적인 것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은 헤게모니에

19) ‘역사적인 지배 블록’과 ‘피억압자들의 사회적 블록’이라는 대립을 ‘제정 권력구성된 힘’(poder constituido)과 ‘제한 권력구성적 힘’(poder constituyente)의 대립항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제한 권력은 제정 권력이라는 타율에 대해 자율의 힘을 뜻하며 “낡은 것이 물음에 던져지고, 변경되거나 파괴되며, 삶의 새로운 형식들이 생산되고 창조되는 곳이면 어디에나 존재”하는 힘을 의미한다(멘티니스 2009, 165-210).

20) 플라톤은 민중의 그리스 어원에 해당하는 데모스(demos)에 괴물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그의 철학 개념인 ‘이데아’의 정치적 의미는 데모스의 ‘형상 없음’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었다는 지적은 민중 개념이 애매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데모스에서는 온갖 형상들, 즉 통치자와 피치자, 시민과 외국인, 노인과 젊은이, 여성과 남성, 인간과 동물 등이 분별없이 섞여 있다. 그것은 반인반수의 켄타우로스나 사티로스처럼 형상들이 뒤섞인 집단 신체이다. 데모스로서는 누구든지 자격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무엇이든 주장할 수 있고, 그 어떤 이질적 신체와도 하나의 신체를 조성할 수 있다”(고병권 2011, 16).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며 대항헤게모니를 요구하는 것이다.

민중적인 것의 정치적 공간은, 정치적 논리가 민주주의적 등가들의 연쇄를 통해 정치적 공간과 경험적 지시대상으로서의 사회 사이의 간극을 메워 주는 경향이 있는 상황들 속에서 출현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민중적 투쟁들은 지배집단들과 공동체의 여타집단들 사이에 극단적인 외재성(exteriority)의 관계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된다...우리의 관심을 서구의 민중적 공간들의 확장과 구성의 사이클로 돌려보면, 우리는 그러한 경우 모두가 권력의 외재성 또는 외재화의 현상과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그러나 19세기 중반 이래 선진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민주주의적 위치들의 증식과 ‘불균등 발전’이 민중적 극을 둘러싼 위치들의 단순하고 자동적인 통일을 점점 더 희석시켜왔다. 민주주의적 투쟁들은 부분적으로 그것들의 성공 바로 그것 때문에 점점 더 ‘민중적 투쟁’으로 통일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성숙한 자본주의에서 정치적 투쟁의 조건들은 윤곽이 뚜렷한 ‘경계의 정치’(politics of frontiers)라고 하는 19세기의 모델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라클라우 · 무페 1990, 165)

차이를 갖는 주체들이 사회라는 질서 내부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을 민주적 요구라고 한다면, 민중적 요구는 민주적 요구들의 차이를 넘어서는 단일한 흐름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그때까지 전체라고 생각했던 사회가 경계를 갖는다는 것, 경계의 외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위에서 라클라우가 언급한 ‘경계’란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경계, 적대 전선을 형성하는 경계를 뜻한다. 민주주의적 투쟁보다 민중적 투쟁이 요구되는 것은 민주주의적 투쟁이 권력의 내부로 포섭되거나 순치(馴致)됨으로써 권력의 외부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라클라우의 말을 빌려 강조했듯이 사회적인 것은 이질적이고, 우연적이며,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도 공간도 궁극적으로 봉합될 수 없다. 이러한 ‘사회의 불가능성’(la imposibilidad de la sociedad)에 가능한 실존을 부여하기 위해 헤게모니가 필요하지만 헤게모니는 늘 실패로 귀결된다. 헤게모니가 실패한다는 것은 헤게모니가 “사회적인 것의 불안전하고 개방적인 성격을 상정하기 때문이다”(라클라우 · 무페 1990, 166).

내부성의 논리가 적대를 희석시켜 내부에 속하지 않는 외부를 끊임없이

내부화하려고 한다면, 민중적 투쟁은 적대를 통해 내부를 외부로 확장한다. 따라서 적대란 단순한 적의가 아니고 “모든 가능한 객관성의 한계에 대한 경험이며 모든 객관성이 그 자신의 객관화가 부분적이고 자의적임을 드러내는 방식이다...적대는 ‘사회적인 것’의 한계이며 사회의 궁극적인 불가능성을 목격하는 것이고 모호함의 느낌이 그 최고조에 달하는 계기이다”(라클라우·무페 1990, 273-274). 즉 적대란 내부를 확장시킴으로써 외부를 내부로 포함시키고 동시에 다시 외부를 향해 열리는 운동이다. 이렇게 본다면 헤게모니의 실패는 우연성의 논리에 따르는 끊임없는 개방적 운동이다. 따라서 민중이 사회를 이분화된 블록으로 나누는 적대의 한 극이 된다는 것은 “계급적 포섭, 계급적 지배와 무관한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생산의 장을 창출할 수 있다”(이진경 2006, 250)는 것이다. 즉 라클라우가 “헤게모니구성체”(1990, 169)라고 부른 사회의 헤게모니 블록화는 대립 진영을 파괴해야 할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사회적 주체의 절합에 의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사회변혁을 만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다.

포퓰리즘은 민중의 등장, 즉 민중적 요구의 출현이다. 포퓰리즘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며, 규정하기 어려운 것은 사회적 현실이 불확정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포퓰리즘을 규정하는 모호성, 부정성(indefinición), 광범위성은 사회적 현실의 외부성에서 유래한다. 라클라우의 연구가 포퓰리즘의 개념을 명료히 하는 대신에 정치적인 것의 논리와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분석으로 집중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에게 포퓰리즘은 현대정치이론의 한 갈래가 아니라 정치적인 것의 내재적 논리가 포퓰리즘이다. 랑시에르가 적실하게 지적했듯이 현실에서 말하는 정치는 치안일 뿐이고, 정치적인 것이 정치라는 주장은 광의의 정치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과도 일치할 수 있다.

IV. 결론

라틴아메리카의 고전적 포퓰리즘은 세계적으로는 자유주의 헤게모니가

위기에 처하고, 라틴아메리카 내적으로는 수출지향적 발전주의가 한계에 부딪혔던 맥락에서 등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틴아메리카의 고전적 포퓰리즘은 급진적인 계급중심적 대안을 중립화시키는 정치적 프로젝트와 발전주의 모델을 추구했다. 다시 말하자면, 라틴아메리카의 고전적 포퓰리즘은 자유주의 축적 모델의 붕괴와 이러한 정치경제적 위기에 대응하지 못한 전통적 과두정치체제의 무능력이 겹쳐진 지정학적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이었다. 뉴딜정책을 통한 케인스주의가 세계적 차원의 국가주도적 발전주의를 토대로 진행된 것이라면, 라틴아메리카의 고전적 포퓰리즘은 경제적·사회적 차원의 뉴딜정책이었다. 고전적 포퓰리즘의 사례로 거론되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는 정치제도와 경제발전의 토대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튼튼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흔히 포퓰리즘이 정치적 지도자와 민중을 매개하는 정치 제도를 무시하고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의 민중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라는 측면만이 강조되는 것은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맥락이 무시되고 형식주의적 측면만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네오포퓰리즘이란 용어는 형식주의적 오류의 구체적인 예증이다. 네오포퓰리즘이 등장한 맥락은 고전적 포퓰리즘이 등장했던 맥락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뿐만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발전모델은 계급이나 국가적 정체성 대신에 개인을 강조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발전모델이 의도하는 것은 국가주도적 발전주의와 고전적 포퓰리즘의 동맹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제도를 무시한 카리스마를 가진 선동가의 민중에 대한 직접적 호소’라는 부정적 함의가 고전적 포퓰리즘과 네오포퓰리즘의 친연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고전적 포퓰리즘이 등장했던 특정한 역사적 국면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라틴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차원의 위기의 진앙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은 군부독재의 지원 속에 진행되었고, 민주화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시장민주주의’로 탈바꿈했다. 1990년

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 사회운동이 활성화된 것은 군부독재와 신자유주의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민중의 사회적 요구를 매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라틴아메리카 대륙을 떠돌고 있는 ‘좌파’라는 유명한 정체는 소위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정치적 주체들, 즉 민중이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포퓰리즘에 대한 연구에서 필요한 것은 고전적 포퓰리즘의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민중 개념에 대한 정치철학적 재해석이다.

참고문헌

- 고병권(201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린비.
- 김은중(2009),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문제설정과 국가 기능의 재편」, 라틴아메리카연구, 22권 2호, pp. 147-178.
- 미하일 멘티니스(2009), 『사빠띠스따의 진화』, 서창현 옮김, 갈무리.
- 백승욱(2006), 『자본주의 역사강의』, 그린비.
- 상탈 무페(2007), 『정치적인 것의 귀환』, 이보경 옮김, 후마니타스.
- 서병훈(2008), 『포퓰리즘: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선택』, 책세상.
- 어네스토 라클라우 · 상탈 무페(1990), 『사회변혁과 헤게모니』, 김성기 · 김해식 · 정준영 · 김종엽 옮김, 터.
- 이진경(2006), 『미-래의 마르크스주의』, 그린비.
- _____(2009), 『외부, 사유의 정치학』, 그린비.
- 주디스 버틀러 et al.(2009),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 좌파에 대한 현재적 대화들』, 박대진 · 박미선 옮김, 도서출판b.
- 주정립(2006), 「포퓰리즘에 대한 이론적 검토」, 시민사회와 NGO, 제4권 1호, pp. 43~79.
- 피터 H. 스미스(2010), 『라틴아메리카, 미국, 세계』, 이성형 · 홍옥현 옮김, 까치.
- Basset, Yann(2006), “Aproximación a las nociones de populismo y gobernabilidad en los discursos contemporáneos sobre América Latina,” *Revista Opera*, abril, Vol. 6, No. 006, pp. 27-45.

- Boron, Atilio(2011), “¿Una nueva era populista en América Latina?” <https://docs.google.com/file/d/0Bx2YC3gJbq2TMjkteV82N2t0SUU/edit?pli=1>
- Cardoso, Fernando H. and Faletto, Enzo(1970), *Dependencia y desarrollo en América Latina*, Santiago: FLACSO.
- Cammack, Paul(2000), “The Resurgence of Populism in Latin America,” *Bulletin of Latin American Research*, Vol. 19, No. 2, pp. 149-161.
- Canovan, Margaret(1999), “Trust the People! Populism and the Two Faces of Democracy,” *Political Studies*, Vol. XLVII, pp. 2-16.
- Conniff, Michael(ed.)(1999), *Populism in Latin America*, Tuscaloos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Córdova, Arnaldo(1974), *La política de masas del cardenismo*, México: UNAM.
- Chavez, Daniel, Patrick Barrett and César Rodríguez-Garavito(eds.)(2008), *The New Latin American Left: Utopia Reborn*, Norwich: Pluto Press.
- Di Tella, Torcuato(1965), “Populismo y reforma en América Latina,” *Desarrollo Económico*, Vol. 4, No. 16, pp. 391-425.
- Di Tella, Torcuato(1977), “Populismo y reformismo,” Gino Germani, Torcuato Di Tella and Octavio Ianni, *Populismo y contradicciones de clase en Latinoamérica*, México: Ediciones Era, pp. 38-82.
- Dresser, Denise(1991), *Neopopulist Solutions to Neoliberal Problems*, San Diego: Center for U.S.-Mexican Studies.
- Dussel, Enrique(2001), *Hacia una filosofía política crítica*, Bilbao, Editorial Desclée de Brouwer, S.A.
- _____(2007), “Cinco tesis sobre el populismo,” <http://enriquedussel.com/txt/Populismo.5%20tesis.pdf>
- _____(2008), *Twenty Theses on Politics*, Duke University Press.
- Germani, Gino(1962), *Política y sociedad en una época de transición*, Buenos Aires: Paidós.
- Germani, Gino, Torcuato Di Tella and Octavio Ianni(1977), *Populismo y contradicciones de clase en Latinoamérica*, 2^o ed., México: Ediciones Era.
- Germani, Gino(1978), *Authoritarianism, Fascism and National Populism*,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 Gonzales, Osmar(2007), “Los orígenes del populismo latinoamericano. Una

- mirada diferente,” *Cuadernos del CENDES*, Sep.-Dic, Vol. 24, No. 066, pp. 75~104.
- Haya de la Torre, Victor Raúl(1935), *El antiimperialismo y el APRA*, Santiago: Editorial Ercilla.
- Hofstadter, Richard(1969), “North America,” Ernest Gellner and Ghita Ionescu(eds.), *Populism: Its Meaning and National Characteristics*, London: Macmillan, pp. 9~27.
- Ianni, Octavio(1977), “Populismo y relaciones de clase,” Gino Germani, Torcuato Di Tella and Octavio Ianni, *Populismo y contradicciones de clase en Latinoamérica*, México: Ediciones Era, pp. 83-150.
- Ionescu, Ghita and Ernest Gellner(eds.)(1969), *Populism: Its Meaning and National Characteristics*, London: Macmillan.
- Knight, Alan(1998), “Populism and Neo-Populism in Latin America, especially Mexico,”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30, No. 2, pp. 223-48.
- Laclau, Ernesto(1977), *Politics and Ideology in Marxist Theory*, London: Verso.
- _____(2005), *On Populist Reason*.
- Laclau, Ernest and Mouffe, Chantal(1985),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s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2° ed., London: Verso.
- M. Mackinnon and Petrone M. A.(eds.)(1998), *Populismo y Neopopulismo en America Latina: El problema de la Cenicienta*, Buenos Aires.
- O'Donnell, Guillermo(1972), *Modernización y autoritarismo*, Buenos Aires: Paidós.
- Panizza, Francisco(ed.)(2005), *Populism and the Mirror of Democracy*, London: Verso.
- Roberts, Kenneth(1995), “Neoliberalism and the Transformation of Populism in Latin America: The Peruvian Case,” *World Politics*, Vol. 48, No. 1, pp. 82-116.
- Stavrakakis, Yannis(2005), “Religion and Populism in Contemporary Greece,” Francisco Panizza(ed.), *Populism and the Mirror of Democracy*, London: Verso, pp. 224-249.
- Viguera, Aníbal(1993), “‘Populismo’ y ‘Neopopulismo’ en América Latina,” *Revista Mexicana de Sociología*, 55, Jul., pp. 49-66.
- Vilas, Carlos M.(2003), “¿Populismos reciclados o Neoliberalismo a secas? El

mito del ‘Neopopulismo’ Latinoamericano,” *Revista Venezolana de Económica y Ciencias Sociales*, 9(May.-Ago.), pp. 13-36.

Weyffort, Francisco(1973), *Populismo, marginalización y dependencia. Ensayo de interpretación sociológica*, Costa Rica: Editorial Universitaria Centroamericana.

Weyland, Kurt(2001), “Clarifying a Contested Concept: Populism in the Study of Latin American Politics,” *Comparative Politics*, 34(Oct.), pp. 1-22.

_____(1996), “Neopopulism and Neoliberalism in Latin America: Unexpected Affinities,”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31(Fall), pp. 3-31.

김은중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ocpaz@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2년 7월 18일

심사완료일: 2012년 8월 15일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17일

Latin American Populism Politico-Philosophically Revisited

Eun Joong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Eun Joong(2012), Latin American Populism Politico-Philosophically Revisited.

Abstract Contrary to the assumption that populism was a thing of the past in the region, a new populism has arisen, phoenix-like, from the ashes of the old. But the historical conjuncture of the resurgence of populism is quite different. The underlying affinity that much scholars stress is a political realignment by appealing directly to the people, bypassing established political institutions. It should be noted that whereas classical populism aimed at disrupting the institutional nexus constituted by economic liberalism and oligarchy, so-called neo-populism appears as neoliberal challenge to the nexus constituted by state-led developmentalism and classical populism. In this perspective,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wofold. One is to reevaluate the classical populism that was the structure and institution of certain specific Latin American regimes in a specific historical conjuncture. The second objective is to redefine the concept of pueblo in view of political philosophy.

Key words populism, neo-populism, pueblo, oligarchy, economic liberalism, neoliberalism